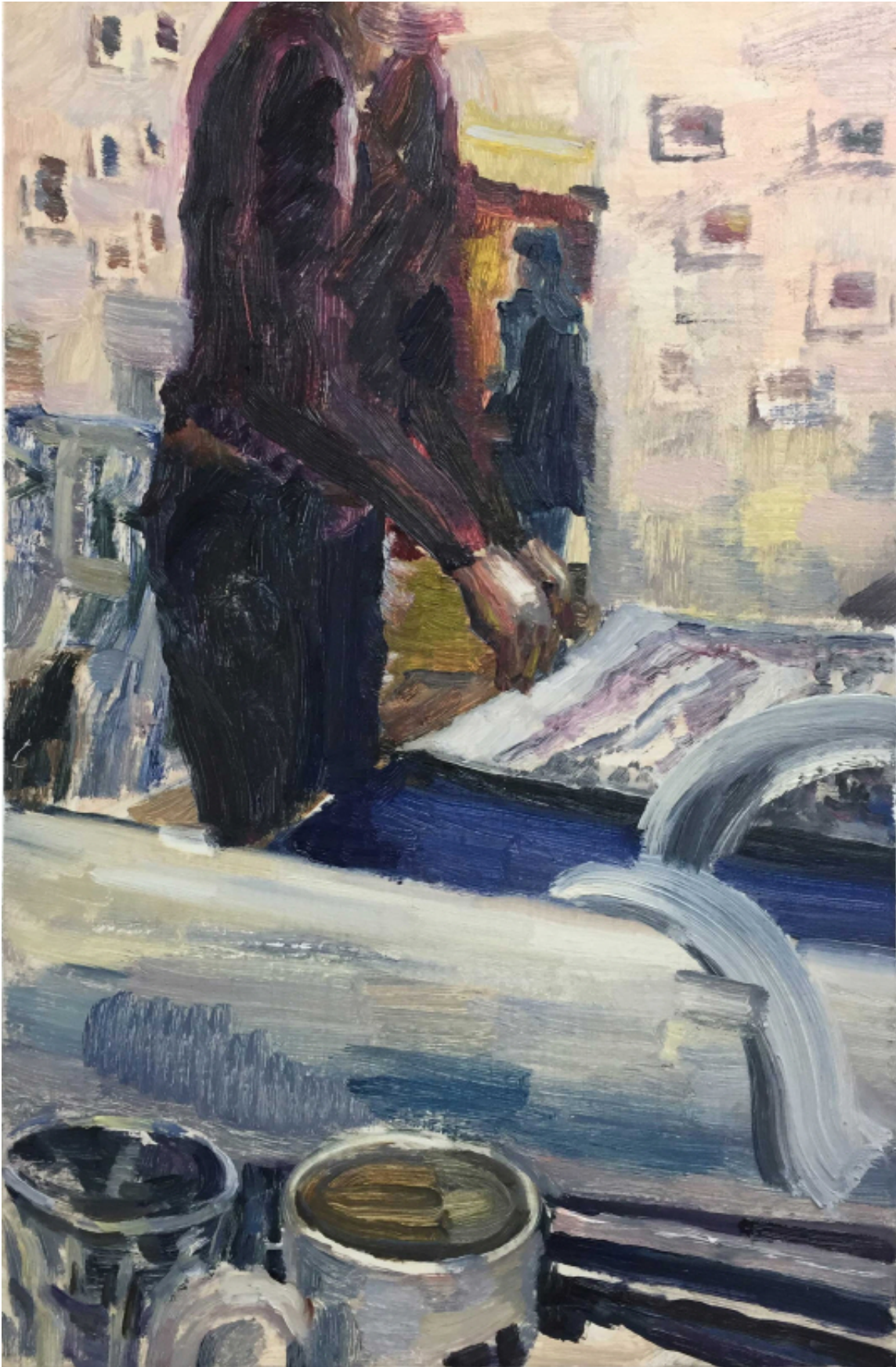


이데일리 기사 인쇄하기

[e갤러리] 화상동화를 그리다...이혜인 '2017.2.24 서울/ 2017.2.23 LA'

입력시간 | 2017-04-06 12:10



이혜인 '2017. 2. 24. 10:00∞12:30(Seoul)/ 2017. 2. 23. 17:00∞19:30(LA)' (사진=백아트)

[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] 화실인가. 한창 작업 중인 누군가가 보인다. 거친 붓질이지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다. 오히려 이해가 어려운 건 작품제목이다. 날짜와 시간에 지명까지 붙인 '듀얼타임'이다.

'2017. 2. 24. 10:00~12:30(Seoul)/ 2017. 2. 23. 17:00~19:30(LA)'(2017)는 서양화가 이혜인(36)의 특별한 시도다. 지구 반대편 낮선 이와 화상통화를 하고 그 영상을 통해 잡아낸 사는 모습, 옮겨다닌 풍경을 실시간 프레임방식으로 그려낸 것이다. 그림 안에 비친 낮선 이는 화가의 눈에 잡힌 또 다른 화가인 거다. 시공을 뛰어넘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완성될 수도 있었다.

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백아트에서 페이스타임의 대상인 이강승과 여는 2인 기획전 '빈 먼 곳'에서 볼 수 있다. 캔버스에 유채. 45.4x37.9cm. 작가 소장. 백아트 제공.

©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- 상업적 무단전재 & 재배포 금지